

소규모 폐 역사의 활용방안 연구

이진욱*

¹동명대학교 실내건축학과

A Study on the Utilization Small Disused Station

Jin-Wook Lee^{1*}

¹Department of Interior Architecture, Tongmyong University

요약 100년이 넘는 철도 역사를 거치며 우리나라에도 많은 폐 역사와 폐 선로들이 발생하고 있다. 상당수의 폐 역사들은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고려한 활용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폐 역사들의 현황과 함께 이용 실태를 살펴보고, 우수한 사례들을 발굴함과 동시에 해외에서 진행한 관련 재개발 계획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진행할 폐 역사 활용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현재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23건의 철도 역사의 활용 실태를 조사하여, 폐쇄형, 계속형, 전용형, 관람형으로 분류하였으며, 해외 사례들을 통해 다른 시각에서 진행되는 활용 방식에 대해 조사하였다.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실제 이용 주체와 세부적인 활용 실태를 적용한 분류를 ‘소유자(관리자)의 사적 활용’, ‘소유자(관리자)의 공적 활용’, ‘커뮤니티의 공적 활용’, ‘관람자의 목적성 활용’, ‘참여자의 협력적 활용’의 다섯가지로 제시하였다. 소규모 폐 역사의 성공적인 활용방안은 폐 역사를 문화재로써 존중하며, 천편일률적인 관광자원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지역 주민들과의 공존과 공생을 위한 장소로 활용하며,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에 의해 자생적인 활용 모델로 만들어져 나가는 것이 지난 세월 그 지역의 교통 기점으로 지역의 역사와 함께한 폐 역사의 의미를 더욱 가치있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More than 100 years of railway history in Korea, many of disused stations and railroads are happening. Many of disused stations are designated as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because of their historical value, and should be utilized considering their historical mean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status and utilization of disused station designated as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research the domestic and foreign cases of successful reutilization, and provide basic materials for desirable utilization of underused space. Status and utilization of 23 stations are classified as closed-type, continued-type, changed-type, toured-type, and different alternatives are analysed from foreign cases. From case study utilization applying user and detailed utilization are classified as follows; Proprietor(Manager)’s Private Use, Proprietor(Manager)’s Public Use, Community’s Public Use, Participant’s Cooperative Use, and Tourist’s Purposeful Use. The successful utilization of small disused station will be carried out with respect for disused station as cultural heritage, using place of coexistence and symbiosis for community, and effort to make spontaneous growth by participation of various users.

Key Words :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Small Disused Station, Utilization of Underused Spac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899년 우리나라에 철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로 백년

이 넘는 세월동안 철도 관련 시설들은 수많은 변화의 과정들을 거쳐 오고 있다. 새로운 철로의 신설과 새로운 형식의 열차가 도입되고,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 빠른 운송 수단으로서 발전되어 왔다. 특히 KTX 고속열차 도입과

*Corresponding Author : Jin-Wook Lee(Tongmyong Univ.)

Tel: +82-51-629-2496 email: jwlee34@tu.ac.kr

Received February 9, 2015

Revised (1st March 20, 2015, 2nd March 31, 2015)

Accepted May 7, 2015

Published May 31, 2015

같은 혁신적인 변화들은 오늘날 철도와 관련 시설들의 모습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 있다. 특히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폐 선로와 폐 역사들은 다양한 형식으로 재사용되기도 하지만 상당수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폐 역사들의 경우 100년 가까이 남아있는 과거의 흔적들을 보존하기 위해 상당수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있는 대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개발되었거나 개발 예정인 폐 철도시설 관련 계획들은 대부분이 레일바이크나 추억 전시등과 함께 관광 자원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과대포장한 계획들이 난립하며 현실성은 더욱 멀어지고 있다. 또한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폐 역사의 활용 문제에 대해서도 반드시 짚고 가야한다. 폐 역사를 폐쇄하거나 창고로 쓰는 경우도 많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음식점과 같은 시설로 임대하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 많은 폐 역사들이 등록문화재로 계속 지정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바람직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폐 역사들의 현황과 이용 실태를 살펴보고, 우수 사례들을 발굴함과 동시에 해외에서 진행한 관련 재개발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폐 역사 활용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에 목적을 둔다.

1.1 연구의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15년 1월 현재 등록문화재 중 철도 역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근대문화유산으로서 등록문화재의 정의와 의미를 살펴보고, 이전 연구를 통해 등록문화재의 활용유형 분류와 폐 역사에 적합한 활용유형 분류 모델을 검토한다.

사례 연구에서는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철도 관련 시설의 현황을 살펴보고, 앞서 조사한 활용유형에 따라 국내의 폐 역사를 분석하며, 해외사례에 대해서도 분류된 유형을 적용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바람직한 활용방안의 가장 큰 의의인 이용주체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실제적인 폐 역사 활용의 이용 주체를 사례별로 분석하여 이용주체와 활용의 유형을 함께 고려한 분류 모델을 제시하여 폐 역사 활용의 올바른 기준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등록문화재로서 철도역사

2.1 등록문화재의 정의와 가치

근대문화유산은 개항과 일제강점기, 광복 등을 거치면서 형성된 우리나라 근대사의 한 단편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산으로 가치가 있다. 하지만 근대문화유산이 문화재의 범주로서 인정받아 이를 적극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이러한 제도의 일환으로 등록문화재 제도는 근대건축물 등의 보호 및 국고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법적근거로 2001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1]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2.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3. 기술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중 하나에 해당하고,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문화재를 말한다.[2]

이는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가치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등록문화재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본 전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등록문화재가 가지는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보존·계승하기 위한 공간의 활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2 등록문화재 활용 유형

등록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계속형, 부활형, 전용형, 관람형, 이벤트형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1] 이러한 분류 중 일시성을 지닌 이벤트형을 제외하면 문화재청(2013)의 분류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계속형은 건물의 용도를 그대로 계속 사용하는 방법이며, 전용형은 건축 당시 처음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계속 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부활형은 일정기간 사용되지 않던 건물을 건립 당시의 목적으로 고쳐 본래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이며, 관람형은 건물을 일반에게 관광자원으로 공개하는 방식이다.[3]

이러한 유형 중 폐 역사의 경우 부활형은 거의 불가능한 유형이 된다. 드물게 폐쇄된 역사가 다시 철도 역사로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 또한 일시적 조치여서 폐 역사

활용 측면에서는 논의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폐 역사와 폐 선로를 이용하여 철도 바이크 및 열차 카페 등의 기능과 함께 철도 역사의 기능을 유사하게 재현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역시 부활형 보다는 관람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완전히 폐쇄하여 관리주체의 자체적인 이용에만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들은 폐쇄형으로 신설하여 분류하도록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폐 역사의 활용 유형은 폐쇄형, 계속형, 전용형, 관람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도록 한다.

3. 연구 분석 내용

3.1 철도 관련 등록문화재 현황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철도와 관련하여서도 많은 시설들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2015년 1월 26일 현재 우리나라 등록문화재는 657건으로 이 중 철도 관련 시설은 모두 53건을 차지하고 있다. Table 1은 등

록문화재 중 철도관련시설에 대한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철도역사와 관련된 시설이 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열차가 10건, 급수탑이 9건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 부속 시설이 3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기타항목이 8건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등록문화재의 소유자 현황에서는 한국철도공사가 36건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국토교통부가 11건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 외 문화재청이 2건, 지방자치단체가 3건, 한국석탄공사가 1건을 소유하고 있었다.[4]

Table 1. Status of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about railroad

Proprietor \ Type	Station	Water tower	Annex	Train	etc.	Total
Korea Railroad corp.	14	4	3	8	7	36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6	5				11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1			1		2
Local government	2			1		3
Korea Coal Corp.					1	1
Total	23	9	3	10	8	53

Table 2. Status of Station of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NO.	Designation	Area (㎡)	Proprietor*	Manager**	Utilization of the current	Utilization Type
105	Ulsan Namchang Station	99.24	Korail		Currently in use	Continued-type
122	Old Gokseong Station	216.19	Local gov.		Tourist Resource	Toured-Type
128	Suncheon Old Wonchang Station	112.04	CHA	Local gov.	Non-use	Closed-Type
136	Seoul Old Shinchon Station	162.10	MOLIT		Tourist Information Center	Changed-Type
165	Wonju Old Bangok Station	138.80	Korail		Gallery	Changed-Type
192	Jinhae Station	248.40	Korail		Currently in use	Continued-type
208	Gunsan Old Impi Station	86.48	Korail		Tourist Resource	Toured-Type
210	Iksan Old Chunpo Station	84.60	Korail		Museum	Changed-Type
270	Daegu Old Panyawol Station	117.00	MOLIT	Local gov.	Small Library	Changed-Type
294	Goyang Old Ilsan Station	174.48	Korail		Non-use	Closed-Type
295	Namyangju Old Paldang Station	56.99	Korail		Non-use	Closed-Type
296	Yangpyeong Old Gudun Station	65.20	Korail		Non-use	Closed-Type
297	Yeongdong simcheon Station	156.00	Korail		Currently in use	Continued-type
298	Samcheok Old Togyong-ri Station	102.40	MOLIT		Non-use	Closed-Type
299	Naju Old Nampyong Station	90.60	Korail		Currently in use	Continued-type
300	Seoul Old Hwarangdae Station	154.90	Korail		Non-use	Closed-Type
301	Yeosu Old Yulchon Station	93.10	Korail		Non-use	Closed-Type
302	Busan Songjeong Station	122.40	Korail		Gallery	Changed-Type
303	Daegu Old Tongchon Station	176.65	MOLIT		Small Library	Changed-Type
304	Mungyeong Old Gaecu Station	123.12	Local gov.		Non-use	Closed-Type
305	Boryeong Cheongso Station	79.95	Korail		Currently in use	Continued-type
326	Mungyeong Old Buljeong Station	74.04	MOLIT	KR	Tourist Resource	Toured-Type
336	Samcheok Old Hagosa-ri Station	36.00	MOLIT		Non-use	Closed-Type

* Korail : Korea Railroad corp. / MOLIT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CHA :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Local gov. : Local government

** KR :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3.2 폐 역사 이용실태

Table 2는 근대문화유산중 철도역사 관련시설들에 대한 좀 더 상세한 현황과 현재 이용실태까지 조사·분석한 결과이다. 면적의 경우 진해역이 248.40㎡로 가장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삼척 구 하고사리역이 36.0㎡로 가장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다. 평균면적은 120.46㎡ 정도를 나타내고 있지만 상당수가 80~160㎡에 해당된다. 소유자와 관리자가 다른 경우는 모두 3건이 있으며, 이 중 2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1건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지역본부 시설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현재까지도 철도역 사로써의 역할을 지속하고 있는 계속형의 경우가 모두 5건이며, 아무런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거나 공사중인 폐쇄형의 경우가 9건이나 되었다. 구 역사를 다른 용도로 바꿔 사용하는 전용형의 경우가 6건으로, 대구 구 반야월역사와 대구 구 동촌역사가 작은 도서관으로 운영되며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며, 서울 구 신촌역사는 새롭게 생긴 신촌역사의 입구에서 위치하여 신촌관광안내센터로 전용되고 있다. 그 외 원주 반곡역사는 갤러리, 익산 구 춘포역사는 춘포역사 전시관. 부산 송정역사는 지역 예술가 그룹에 공간을 임대하여 도예 공방과 갤러리로 활용되고 있다. 관람형의 경우 3건을 차지하며 가장 적극적으로 폐 역사를 활용하고 있는데 구 곡성역사와 문경 구 불정역사는 폐 선로를 이용한 레일바이크 시설과 함께 주변 지역을 관광자원으로 적극 개발하며 구 역사 또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3.3 해외 사례 연구

3.3.1 Ornano Station, Paris

프랑스 파리의 18구(區)에 위치한 폐 역사인 오르노 역은 ‘La Recyclerie(재활용 가게)’라는 이름으로 2014년 6월부터 개장하였다.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파리 외곽 지역을 연결하던 소순환 노선의 역으로 70년 동안 이용되다가 1934년에 문을 닫은 오르노 역은 본래의 독특한 분위기를 간직하기 위해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쓸모 있게 바꾼다’를 기본 전제로 개발되었다.[5]

새롭게 바뀐 역사 공간에는 다용도 홀, 레스토랑, 미팅룸, 식료품점, 매점을 비롯하여 수리공방을 서비스하고 있다. 개발의 기본 전제와 같이 직접 사용하던 중고품이나 이곳에서 열리는 베품시장을 통해 구입한 중고

물품을 가져와서 수리를 맡기거나 직접 수리할 수 있는 장비들을 지원하고 있다.[6]



Fig. 1. Inside of La Recyclerie
Source : <http://www.larecyclerie.com/>

역사와 연결되는 외부 테라스에서는 가구, 헌책, 헌옷, 화분 등의 주제를 바꾸며 매주 베품시장이 열리고 있으며, 선로변 승강장에는 파라솔과 테이블, 의자를 제공하여 식사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오르노 역의 재개발 사례는 시민들이 누구나 부담없는 가격으로 시설들을 이용하여 휴식과 문화를 즐기며 시민들 스스로 창조해가는 여가와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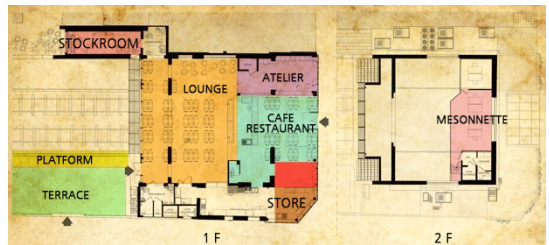


Fig. 2. Plan of La Recyclerie
Source : <http://www.larecyclerie.com/>

3.3.2 Saint-Oue Station, Paris

프랑스 파리의 18구(區)에 위치한 폐 역사인 생-우앙 역은 ‘Le Hasard Ludique(우연한 놀이)’라는 이름으로 2015년 가을 개장을 목표로 창작과 실험음악을 위한 공간으로 개발하고 있다.[5]

생-우앙 역은 1863년 철도역사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1934년 그 생명을 마감하였으며, 1938년에서 1958년까지 영화관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 후 2011년까지 다양한 소매점들이 입점을 거듭하다 2011년 프랑스철도청에 의해 다시 매입된 이후 본격적인 재개발 계획이 추

진되었다. 1층은 250석 규모의 공연장(90m²)과 함께 주방을 갖춘 식당 공간(100m²)으로 구성되며, 2층은 독립 공간과 가변적 공간을 갖춘 창작활동을 위한 아틀리에(40m²)로 활용될 계획이다.[7,8]



Fig. 3. Exhibition in Le Hasard Ludique before Official Opening

Source : <http://lehasardludique.paris/>

3.3.3 Mojiko Station, Kitakyushu

모지코 역은 1914년 개업한 이래 100여년 된 목조 건물을 그대로 쓰고 있어 역사 자체로도 훌륭한 관광지역 역할을 하고 있다. 1983년 시민들의 모지항보존회 결성과 1988년 국가중요문화재로 지정되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 주도하에 인근지역의 근대유산들과 함께 지역자원화 전략이 추진되었다. 역 플랫폼에 여행자들의 중, 행복의 샘, 근대기 인력거 등이 전시되고 있으며, 일체의 현대적인 설비를 배제하여 당시의 모습을 충실히 보존하고 있다.[9]

3.3.4 Tempelhof Station, Berlin

독일 베를린시 도심 남부에 위치한 쾨게렌데 자연 공

원(Sudgelande Nature park)은 템펠호프 화물열차역이 이었던 곳으로 1950년대 철도운행이 중단된 이후 부지 내 동식물들이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성장해 주목을 받게 되었다. 1980년대 말 자연공원으로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어 개발을 최소화하며 방문객의 산책로 또한 자연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개방되었다. 철도관련 건축물 및 장비는 그대로 보존하며, 공원의 상징인 급수탑은 전망대로 활용하고 있다.[9]

3.4 소결

해외 사례들 또한 국내 사례와 같이 폐 역사의 활용 유형을 적용하여 볼 수 있다. 오르나노 역, 생-우앙 역은 전용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모지코 역, 템펠호프 역은 관람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실제 폐 역사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대부분이 분류 될 것이다. 하지만 이상의 사례들이 단순히 폐쇄형, 계속형, 전용형, 관람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는 복잡한 활용 양상들을 모두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실제 이용 주체와 세부적인 활용 실태를 동시에 적용하여 분류할 필요가 있다. Table 3에서와 같이 폐쇄형은 소유자(관리자)에 의해 사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이며, 계속형은 소유자(관리자)에 의해 공적으로 사용되는 유형이 된다. 관람형의 경우 관광이라는 분명한 목적으로 가지는 이용자들에게 의해서만 사용되므로 관람자에 의한 목적성 활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전용형의 경우 첫 번째로는 용도를 변경하여 공적으로 사용하되 이용주체가 지역 사회에 한정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대구 구 반야월 역사와 같이 작은 도서관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 용도는 바뀌었으나 인근 지역의 지역민들만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된다. 해외 사례

Table 3. User's Utilization Type and Case

Utilization Type	User	User's Utilization Type	Case
Closed-Type	Proprietor(Manager)	Proprietor(Manager)'s Private Use	Suncheon Old Wonchang Station, Goyang Old Ilsan Station, etc.
Continued-Type	Proprietor(Manager)	Proprietor(Manager)'s Public Use	Ulsan Namchang Station, Yeongdong simcheon Station, etc.
Changed-Type	Community	Community's Public Use	Seoul Old Shinchon Station, Daegu Old Panyawol Station, etc. Ornano Station
	Proprietor(Manager)+Community+Guest	Participant's Cooperative Use	Busan Songjeong Station Saint-Oue Station
Toured-Type	Tourist	Tourist's Purposeful Use	Old Gokseong Station, Gunsan Old Impi Station, etc. Mojiko Station, Tempelhof Station

로는 오르나노 역이 해당되지만 좀 더 다양한 용도와 적극적인 교류 행사들로 인해 이용 주체의 범위는 좀 더 확대 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 유형은 소유자(관리자)와 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초대된 이용주체들이 모두 협력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된다. 다양한 이용주체를 참여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협력에 의해 서비스를 만들고 함께 누리며 자생적인 문화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형태이다. 부산 송정역의 경우 도예 공방과 체험 교실 운영을 통해 지역의 작가들과 지역민이 함께 문화활동을 꾸려나감과 동시에 초대작가전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생-우양 역의 경우도 공연장, 아틀리에, 식당의 시설들을 통해 다양한 참여자들이 주도하는 문화 창작 활동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3. 결론

이상과 같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폐 역사의 이용주체에 따른 활용 유형은 ‘소유자(관리자)의 사적 활용’, ‘소유자(관리자)의 공적 활용’, ‘커뮤니티의 공적 활용’, ‘관람자의 목적성 활용’, ‘참여자의 협력적 활용’의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앞의 네 가지 유형은 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하는 주체와 이용하는 주체가 분리되어 있으나, 마지막 유형은 참여자들 스스로 서비스를 만들고 나누며 자생적인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물론 폐 역사마다 처해있는 여건들이 모두 다르기에 특정 유형이 올바른 활용 유형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폐 역사 개발 계획들을 살펴보면 운영주체의 의욕이 과다하게 앞선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성공한 사례를 쫓아 동일한 개발 모델을 모방함으로써 희소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실현되지 못할 과다한 개발계획의 청사진만 늘어놓아 치적 쌓기에 목을 매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의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소규모 폐 역사의 성공적인 활용방안은 폐 역사를 문화재로서 존중하며, 친편익물적인 관광자원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지역 주민들과의 공존과 공생을 위한 장소로 활용하며,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에 의해 자생적인 활용 모델로 만들어져 나가는 것이 지난 세월 그 지역의 교통 기점으로 지역의 역사와 함께한 폐 역사의 의미를 더욱 가치있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J.S.Lee, C.L.Lim, Y.H.Hwangbo, A Study on the Reusing Model of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through the Analysis on Usage Characteristics, Journal of the regional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 16, No. 3, 2014. 6, p. 17-18
- [2]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http://www.cha.go.kr> (2015.01.26.)
- [3]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or, A Study on the Basic Utilization Plan by Themes for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2013. 12, pp.12-13
- [4]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Research Results of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Available From: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Detail_Result_new2012.jsp#except. (2015.01.26)
- [5] The Seoul Institute, Two Old Stations Are Recreated Into Civic Cultural Space, World City Trends, Vol. 330, p. 5
- [6] La Recyclerie. [http://www.larecyclerie.com/ la-gare-ormano/](http://www.larecyclerie.com/) (2015.01.26)
- [7] Le Hasard Ludique of Facebook, <https://www.facebook.com/LeHasardLudique/> (2015.01.26)
- [8] Le Hasard Ludique, <https://lehasardludique.paris/> (2015.01.26.)
- [9] M.S.Bae,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Modern Railway Station, Mokwon University Masterr's degree, 2013, p.40-46

이진욱(Jin-Wook Lee)

[정회원]



- 1997년 2월 :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공학과 (공학석사)
- 2004년 2월 :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공학과 (공학박사)
- 2006년 5월 ~ 2009년 8월 : 건설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 2009년 9월 ~ 현재 : 동명대학교 실내건축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실내건축계획 및 설계, 도시재생, 건축설계